

# 시·도민들과 애환 함께 한껏 한껏 생생한 순간들



“눈깔사탕·쫄득이 맛있어요”

1970년 1월, 광주의 한 국민학교(초등학교) 문구점 앞에서 막대사탕을 빨아먹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1960~1970년대 막대사탕과 눈깔사탕, 쫄득이, 아이스크림 등 10월이면 여러개를 사먹을 수 있는 군것질 거리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였다.



이한열 열사 추모 인파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 2학년 이한열(당시 20세)씨의 운구 행렬이 광주에 도착한 1987년 7월8일 오후, 수만명의 추모 인파가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 이씨의 죽음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이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이씨는 광주 망월 묘역에 안장됐다.



문 안달해도 “오라이~”

버스가 광주시 교통수단의 전부다시피 했던 1980년(3월25일) 오전 출근길, 출발을 위해 승객을 온몸으로 밀어붙이는 차장(여승무원)의 모습이 이채롭다. 광주시는 당시 출근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광버스를 출퇴근시간대에 투입하기도 했다.



보잉 737기 해남서 추락

승객 104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서울발 목포행 보잉 737 여객기가 1993년 7월 26일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산중턱에 추락했다. 추락한 기체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대파됐으며, 이 사고로 기장 등 승객 66명이 숨졌다.

## 내가 본 광주일보

### 호남의 자존 지킨 ‘가시밭길’ 60년



최승호

- ▲광주일보 편집국장
- ▲광주일보 주필
- ▲‘최승호 칼럼’ 연재
- ▲광주일보 사장
- ▲조선대 학교 이사장
-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가시덤불 헤치며 성실한 나날 겨레의 고통이 메아리 친다...” 지금도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내 귀에는 이 노래 소리가 쟁쟁하다. 해마다 창사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불렀던 광주일보 사가의 첫 대목이다.

6·25 민족전쟁을 겪으며 태어난 광주일보의 전신 전남일보와 4·19 혁명의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운 전남매일신문이 5·18이라는 현대사의 큰 파도속에 하나의 몸통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한마디로 가시덤불의 역사이자 이 나라의 겨레의 고통이요, 맥박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란 살아있는 증인이며 호남인의 자존이자 새 시대 새 역사를 밝혀나갈 등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난날 40년 세월을 광주일보와 함께 해온 나는 오늘 어느새 곱어진 나이에 앞세삼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다. 어떤 말로 어떤 몸짓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찬사와 박수로 꽃다발을 보내야 할지 잘 가늠이 가지 않아서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언론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언론자유 문제거나 아니면 언론통제도 아닌 언론 스스로 불러들인 방만과 부절제의 이중적 비현실성 탓이 아닌 가 한다. 신문이 사회 소통의 유일한 수단이던 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신문이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지 그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이 또한 언론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현실이 고통스럽게 때문이다.

암울했던 지난 50년대나 60년대에도 지역민들의 사랑은 온몸에 받아왔던 신문, 그래서 우리는 사시에 내건 그대로 지역개발의 기수를 자처하지 않았던가. 유신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던 70년대만 해도 지역차별을 외치며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선두에서 서서 언론통제의 사슬을 해쳐나갔다.

이름바 ‘호남 푸대접’으로 일컬어지는 조국근대화와 산업화의 물결에 외면당한 호남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했던 것은 우리의 자존을 살리고 긍지를 높이는 자연보호 캠페인이었으며 농촌살리기 운동이었으니 ‘락토’(樂土)호남 기획물과 ‘부농’(富農)시리즈였다. 국가안위를 생각하며 호남의병의 혼을 재발굴한 ‘의병열전’(義兵列傳)을 연재했던 것도 이 무렵이다.

그리하여 80년대 새롭게 태어난 광주일보는 마침내 군부독재의 만행을 고발하며 “무등산은 알고 있다”라고 외치지 않았는가. 그 위대한 광주 민중항쟁의 승리를 지역민과 함께 울부짖어야 했던 일이 었제같이 선풍적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현대사의 한 중심에서 서서 이토록 처절하게, 이토록 눈물겹게 그리고 이토록 가슴 벅치게 외쳐본 적이 또 있었을까 싶다.

그러나 90년대의 언론홍수를 맞기 전까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시련은 단순히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신문시장의 혼란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대형신문들의 지면확장을 통한 몰락공세이자 지역언론에 대한 피말리기 아니었단가. 이것은 ‘언론자유’라는 포장을 둘러싼 가면놀이이자 ‘눈감고 아웅’하는 지방신문 죽이기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언론환경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니 과연 어쩌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면 지역언론의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오늘 60년의 굵은 뿌리를 내린 광주일보의 길 또한 아직도 가시덤불이다. 이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오직 지역민의 사랑만을 애처롭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슴을 활짝 열고 진솔하게 고민하고 호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저하지 말고 남의 눈치보지 말고 ‘광주일보만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포용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굳이 지난 시대의 저항하고 투쟁하는 선비정신이나 우국지사의 정신이 아니고도 지역사회를 위한 용기있는 도전은 얼마든지 있을 듯하다. 가령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항토인의 성공기담이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역경을 헤쳐나가는 삶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알려준다면 흥미롭지 않을까.

오늘 지역신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약조건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힘들겠지만 광주일보만의 차별화를 통해 그 활로를 찾아 나선다면 반드시 지역민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 길이 당장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든 신념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앞으로 광주일보 100년의 빛나는 금자탑이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 곳곳에까지 빛나주기 바란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문화사적으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시기 기원하며 지난날 목청껏 불렀던 광주일보의 노래 끝 구절을 다시 한번 큰소리로 외쳐본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웃음을 심는 새 역사의 모습이다. 등불이다. 빠른소식 큰 사랑 양심의 묵탁, 굳세어라, 빛나라, 광주일보”



‘미스 전남’ 카퍼레이드

1966년도 미스 전남 선발대회 입상자들이 5월 17일 광주 충장로에서 군용차량을 타고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광주일보는 매년 5월 ‘미의 제전’인 미스 전남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시프린스호 침몰

1995년 7월 23일, 유조선 시프린스호가 여천군 남면 소리로 앞바다에서 태풍 ‘페이’를 피하다가 좌초해 5000여의 기름이 방류됐다. 이 사고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죽음의 바다로 바꾸어 놓았다.